

# 평준화지역 일반고 합격자 9368명

전주 5798명 · 군산 1886명 · 익산 1680명 등... 15일 오후 2시 학교 배정, 등록기간은 16~19일

전북도교육청이 전주·군산·익산 등 2024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합격자를 발표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모집정원은 총 9,368명으로, 지원자는 9,681명이었다. 이중 전주 5,798명, 군산 1,886명, 익산 1,680명이 합격했으며, 불합격자는 전주 256명, 군산 0명, 익산 61명이다.

이는 전체 지원자 9,681명 중 평준화 일반고 중복지원이 가능한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합격자 197명을 제외한 숫자다. 정원 외 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 특례입학대상자)는 별도 선발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오는 10일 오후 2시 2층 강당에서 서거석 교육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학부모·학생·언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평준

화일반고 합격자 학교배정 공개 추첨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관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는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학교배정 결과 발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소속 중학교,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 전북고입전형포털(<https://satp.jbe.go.kr>)에 접수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다. 배

정된 학교는 변경할 수 없다. 전기·후기 합격자 모집 등록기간은 16~19일이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고등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 한편 평준화지역 30개교를 제외한 94개 학교 중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들은 2월 1~2일 추가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은 8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초등학교 교사, 교감 및 체육교과전담 교사 26명을 대상으로 '2023 초등학교 체육교과 전문성 함양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 전북대,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

2009년 이후 16년째  
플래그십대학 책무 일환  
정부사업 유치 등으로  
대학 재정 해소키로



전북대학교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고통 분담을 위해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사진은 전북대 한옥정문 전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고통 분담을 위해서다. 전북대의 등록금 동결은 2009년 이후 16년째다. 2012년엔 5.6%를 인하한 바 있다. 8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5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원들은 오랜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재정이 매우 어렵지만 고통을 등 사회적 고통을 나누는 것이 플래그십대학을 지향하는 거점국립대학의 책무라고 중지를 모았다.

대신 전북대는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지속적인 대학 재정 악화와 예산 부족 등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나 연구비 수주,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대학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을 지향하

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게 됐다"며 "교육 관련 정부 지원사업이나 발전기금 등을 다수 유치하고 잘 활용해 등록금 동결이 학생 교육이나 취업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국립군산대 'G-SEED 진로탐색학점제' 활동 본격

국립군산대학교가 국외교육 체험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글로벌 프로그램 'G-SEED(Global-SEED) 진로탐색학점제' 활동이 지난 12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사업은 국립군산대 학생회가 주관하고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후원으로 추진됐으며, 대학별 진로교육과정 모델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다문화 감수성 및

글로벌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G-SEED 진로탐색학점제' 프로그램은 코로나 이후 주춤해진 국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교수가 한 팀을 이뤄 국내에서 국외 활동으로 전공 연계 심화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기획은 10팀 내의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지도교수와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으로 총 18팀(재학생 95명 지

도교수 18명 총 113명)을 선발하였다. 최종 선발된 18개 팀은 지난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까지 지원 금액 총 3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싱가포르, 몽골, 인도네시아, 홍콩 등 10개국으로 파견된다. 1차 몽골팀 6명을 시작으로, 1월 2일부터 2차로 독일팀 7명, 홍콩팀 7명이 파견됐다. 3차는 1월 7일 이탈리아팀 13명을 파견했다. /군산=김관문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전북대, 2024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4.98대 1... 전년비 ↑  
지난해는 4.87대 1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6일 202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1,459명 모집에 7,259명이 지원해 4.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4.87대 1보다 높아진 수치다. 이에 따르면 685명을 선발하는 가군에는 모두 3,732명이 지원해 5.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774명을 모집하는 나군은 3,527명이 지원해 4.5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경별로는 가군 일반학생 전형은 5.4대 1, 지역인재전형(2유형)은 9.4대 1, 농어촌학생전형은 7.6대 1, 기회균형선발 전형은 5.5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군에서는 일반학생 전형은 4.77대 1, 기회균형선발 전형은 9대 1, 농어촌학생 전형은 5.6대 1, 지역인재전형(2유형)은 3.55대 1, 만학도전형은 2.5대 1, 예체능 2.96대 1 등이었다.

특히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 가군 일반전형 치외에 과로 5명 모집에 62명이 지원해 1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만학도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체육교육과의 경우 오는 15일 1단계 합격자가 발표되고, 예체능은 18일 실기고사가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월 30일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s://enter.jnu.ac.kr/>)를 통해 발표된다. /장은성 기자

## 초등 체육교과 전문성 함양

전주교대, 초등 교사 등 26명 대상 직무연수

전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원장 고한중)은 8~17일까지 8일간 초등학교 교사, 교감 및 체육 교과전담 교사 26명을 대상으로 '2023 초등학교 체육교과 전문성 함양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초등학교체육 교육과정 이론 및 실기능력 함양으로 초등 체육교과 지도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연수과정의 70% 이상이 대담·토의 및 사례 연구, 실습 등 학습자 참여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변화하는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202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안내

도교육청, 3월 홈페이지 통해... 4월 원서접수 · 6월 필기시험

전북도교육청은 '202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오는 3월 홈페이지(<http://www.jbe.go.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9급과 연구사 공개·경력경쟁시험 원서접수는 4월, 필기시험은 6월 22일 실시되며, 면접시험은 8월, 합격자 발표는 9월 중 진행된다. 또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및

층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9급 경력경쟁시험 원서접수는 8월, 필기시험은 11월 2일, 면접시험은 11월,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 이뤄진다. 다만, 이번에 공지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수험생은 향후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김미영 직원, 교육부장관 표창

우석대학교 김미영 직원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유공자로 선정,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미영 직원은 교내 비교과 교육과정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와 다양한 비



교과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 혁신 생태계 구축에 일조했다. 특히 우석대학교가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다. 김미영 직원은 "함께 노력한 많은 교직원들을 대표해 받은 상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맡겨진 업무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